

보도시점 2024. 6. 12.(수) 12:00
(2024. 6. 13.(목) 조간)

배포 2024. 6. 12.(수) 09:00

대한민국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기술과 산업의 미래 세계적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다

- 과기정통부,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학술토론회(심포지엄) 2024」 개최 -
-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기술 표준화 국제단체(O-RAN Alliance) 정기 기술총회와 연계 -
- 삼성전자, 퀄컴, NTT 도코모,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 참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12(수)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국내외 오픈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오픈랜 기술·산업 동향과 오픈랜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오픈랜 심포지엄 2024(Open-RAN Symposium 2024, 이하 「오픈랜 심포지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접속망)은 국제표준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의 공급망 다양화 정책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오픈랜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오픈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18년부터 전세계 산·학·연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표준화 단체 'O-RAN Alliance(이하 오픈랜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오픈랜 얼라이언스의 승인을 받은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를 국내에 구축하는 등, 오픈랜 얼라이언스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오픈랜 얼라이언스 300여개 회원사가 모두 모이는 정기 기술총회(Face-to-Face Meeting)를 처음으로 국내에 유치(6.10(월) ~ 6.14(금))하게 되었다.

「오픈랜 심포지엄」은 오픈랜 얼라이언스 정기총회와 연계하여, 과기정통부와 국내 오픈랜 민·관 협의체인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 주관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오픈랜 얼라이언스 최진성 의장(도이치텔레콤 부사장), ORIA 류탁기 대표의장(SKT 인프라기술담당), 연세대학교 김동구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오픈랜 산·학·연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다.

「오픈랜 심포지엄」 행사는 전세계 오픈랜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기조발표로 시작되었다. 먼저, 대규모 오픈랜 상용화를 선도한 일본 통신사 NTT도코모와 라쿠텐모바일은 오픈랜의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가상화 기지국(vRAN) 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본격 진출한 미국 쉘컴과 윈드리버는 통신장비·반도체·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 기업 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며, 글로벌 장비 제조사인 노키아와 삼성전자는 오픈랜으로의 전환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계획을 공유했다.

글로벌 기업의 기조발표에 이어, 오픈랜 활성화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각종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한 발표도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가 '23년부터 추진 중인 ① ‘오픈랜 핵심기술 개발사업’ 및 ②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 운영 사업의 주요 성과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오픈랜 실증사업’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뒤이어, 국내 산·학·연도 그간의 주요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였다. 국내 통신3사, 에치에프알(HFR)·삼지전자·솔리드(SOLiD) 등 중소·중견 장비 제조사, 그리고 오픈랜 시장 신규 진입을 계획 중인 LG전자는 그간의 연구 성과와 미래 기술 비전을 발표했다. 아울러, 연세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픈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로, 국내에서의 오픈랜 실증 및 상용화 방안에 대한 패널 토의도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부의 오픈랜 정책 성과와, 국내 산·학·연의 연구개발 및 상호운용성 검증(Plugfest) 성과에 대해 다양한 전시도 준비되었다. 또한, 오픈랜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는 국내·외 단체(ORIA-오픈랜 얼라이언스) 간의 표준화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행사도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오픈랜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정부와 오픈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 파트너”라면서, “이번 오픈랜 얼라이언스 기술총회와 「오픈랜 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 산·학·연이 오픈랜 기술과 표준을 함께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 역시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공동연구·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오픈랜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오픈랜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오픈랜 심포지엄 2024’ 행사 계획(안)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재훈 (044-202-6420)
		담당자	사무관	황원준 (044-202-642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배경 및 목적

- 세계 최대 오픈랜 기술 표준화 단체인 O-RAN Alliance* 정기총회(年 3회, 아시아·유럽·아메리카)를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 예정(6.10~14, 인천)
- * O-RAN Alliance: 글로벌 제조사·통신사·SW기업 등 300개 회원사로 구성되며, ① 국제표준 제정, ② 국제공인시험소(OTIC) 지정, ③ 글로벌 상호운용성 검증행사(Plugfest) 개최 등 역할 수행
- O-RAN Alliance 총회 계기, 국내·외 단체 간 협력 및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오픈랜 심포지엄」 행사 개최 추진(6.12)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4.6.12(수) 09:00~17:30 /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
※ O-RAN Alliance 총회: 6.10(월)~14(금),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 참석자: O-RAN Alliance 의장(DT 최진성 부사장), 국내·외 주요 오픈랜 기업(통신사·제조사·SW 기업) 관계자, 연구기관·대학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글로벌 오픈랜 선도 기업 기조발표
△ 국내 오픈랜 정책·산업 주요 성과 및 계획 발표
△ 국내·외 주요 기업 간담회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09:20~11:20	(120분)	■ 글로벌 오픈랜 기업 기조발표	NTT Docomo·Rakuten(日), WindRiver·Qualcomm(美), Nokia(핀란드), 삼성전자
11:20~12:30	(70분)	■ 초청 세션	
		- 축사 및 개회사	과기정통부 장관(영상) , O-RAN Alliance 의장 등
		- O-RAN Alliance-ORIA 현황 및 계획	O-RAN Alliance, ORIA
		- MOU 체결식(O-RAN Alliance - ORIA)	
12:30~13:40	(70분)	■ 오찬	산·학·연 주요 참석자
13:40~15:00	(80분)	■ 국내 기술개발·실증 동향	
		- 오픈랜 R&D·실증사업 추진 현황	IITP, NIA, TTA
		- 국내 기업 기술개발 현황	통신사(SK·KT·U+),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15:15~16:30	(75분)	■ 국내 산·학·연 발표 세션	국내 중소중견기업, ETRI, 연세대학교
16:45~17:30	(45분)	■ 패널 토의	참석자 전원